

비매닛할망당은
 산신백관으로 곁이
 내혀 온 할마님이우다.
 할으방은 동산당인디
 브름우로 좌정하고,
 할마님은 브름알로
 알넉밭이 좌정하여
 상을 받읍네다.
 초담에 산신백관으로
 할망 할으방이
 훈디 느르오단
 하도 애가 써지난
 돛짓자국에 물 빨아먹언
 느르와시난
 할으방은
 “존경내가 과하시다
 어떤 일이나?” 허연
 “돛짓자국에 물을 먹었수다.”
 그러니,
 “나광 훈디 못앗나,
 추접허다,
 브름알로 가라.” 허연,
 경허난,
 이 지금??지도
 들들이 모든 족손들이
 생기 맞은 날로
 아무 둘이나 강
 젤 지냅네다.

제일, 족손에 생기 맞은 날.

<애월면 소길리 남무 72세 양시봉님>